

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 확산... 종부세 반대 7000건 육박

종부세 개정안 입법의견 6934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반발
장기보유특별공제 철회 청원 등장
국회서 양도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부 개정안 내달 초 국회 제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름 만에 7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 왔다. 국회에서도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6934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12억원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바뀌게 된다. 거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세제 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가 더 많아졌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한을 기존 60%에서 70%로 올린 데다 세 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라면 대부분 세 부담이 더 커졌다.

그간 1주택자는 보호했던 것과 달리 비거주를 이유로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부부 공동명의나 고령자 등도 불리해졌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 의견 제출자는 “비거주 1주택자는 대부분 직장 이전, 자녀의 학업,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이며, 결코 투기세력이 아니다”라며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역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2971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기보유특

별공제 제도가 주택의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는 유예를 두지만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뿐 아니라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며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세법개정안을 보완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간 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 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교세 기준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억원 기준은 지난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기존 대비 규모가 작고 가격도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일부 미뤄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1면 ‘빌게이츠...’서 계속

세계 소비 식어도 AI는 뜨겁다... 韓 ICT 수출 140% 급증

美·日 소비 둔화 中 신규대출 순감
7월 ICT 수출 533억6000만달러
반도체 178.8% 늘어 77% 차지

미국의 상품 소비와 일본 내수가 주춤하고 중국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신규 은행차입이 줄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7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년 전보다 140.6% 급증했다. 세계 수요의 전면적인 회복보다 가계의 소비·신용과 인공지능(AI) 서버반도체 수요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美·日 소비 주춤·中 신규대출 순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3%, 연율로는 1.1% 증가했다. 순수출이 성장률을 0.5%포인트(p) 높은 반면 내수는 0.2%p 끌어 내렸다. 민간소비는 사실상 보험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1.2% 감소했다. 수출이 0.5% 늘었지만 수입이 1.5% 줄어 순수출 기여도가 커진 만큼 소비가 이끈 성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미국의 상품 소비 모멘텀도 약해졌다. 미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월간 소비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중국에서는 7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3400억위안 순감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누적 통계를 토대로 계산하면 가계대출이 4603억위안, 기업대출이 1300억위안 각각 줄었다. 7월이 통상 대출 비수기인 데다 6월 대출 집행이 앞당겨진 영향도 있다.

반면 AI 인프라 투자는 가계의 최종소비와 다른 사이클을 타고 있다.

◆ICT 수출 77%가 반도체

산업부에 따르면 7월 한국의 ICT 수출은 53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0.6%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5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10억

2000만달러로 178.8% 늘어 ICT 수출의 76.9%를 차지했다. AI 서버에 탑재되는 SSD 수출도 500.2% 급증했다.

지역별 수지도 최종소비보다 AI 공급망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 중국·홍콩 행 ICT 수출은 194.7% 늘었고 이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89.1%에 달했다.

수출 호조의 폭도 고르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의 ICT 수출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11.0%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나트륨 원자로 8기 개발

◆메타 최대 8기 추진... 후속 공급망 진입 주목

케머러 1호기는 테라파워가 처음 건설하는 나트륨 원자로다.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에 용융염 기반 열에너지저장 시스템(TES)을 결합해 기본 출력 345MW를 최대 500MW까지 높일 수 있다. 올해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 허가를 받은 데 이어 4월 원자로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케머러 1호기에 이어 메타와 미국에서 최대 8기의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한다. 첫 원자로 공급은 이르면 2032년 시작되며 전체 발전용량은 2.8GW다.

/원관희 기자 wkh@

All Good POHANG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청년의 힘,

포항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

po-hang 포항시